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도 검증

홍희숙 · 고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Well-being Lifestyle Measurement Development

Heesook Hong · Ae-Ran Koh*[†]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접수일(2008년 8월 20일), 수정일(1차 : 2008년 10월 21일, 완료일 : 200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4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well-being lifestyle measur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51 Korean females ranging from 20 to 50 years old. The measurement items were developed by focus group interview to well-being consumers. Through a serie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7 sub-factors and 14 items that construct final measurement model of well-being lifestyle were identified: Health oriented eating habits, social welfare oriented consumption, interest in health policy, self-esteem enhancement, sports activity, volunteer for local community, use of cosmetics made of natural components. Fitness of measurement model and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measurement variables were accepted as a good level.

Key words: Wellbeing oriented lifestyle, Structural equation model, Measurement development; 웰빙 라이프스타일, 구조방정식 모형, 측정도구 개발

I. 서 론

국내 소비자들은 지난 30년~4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전을 누리게 되자 Maslow(1959)의 상위 욕구들인 자기표현, 자아실현, 아름다움, 행복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05년 한국이 GDP기준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세계 49위(World Bank, 2007)로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미 전체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인 '노년 인구국'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통계청, 2006)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웰빙

추구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자극을 통한 일시적 유행현상이라기 보다는 '건강과 삶의 질 만족'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근거하여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웰빙을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생활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웰빙 라이프스타일 관련 일부 연구들(예: 박정숙, 2005; 이화선, 2005)은 측정도구의 제한점이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LOHAS 지표나 체일기획 웰빙 지수는 국내 소비자의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희숙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웰빙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들의 축진은 물론 기업의 시장세분화 및 세분시장의 특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arkoh@yonsei.ac.kr

본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C00535).

II. 문헌적 배경

1. 웰빙의 개념

학자들에 따라 웰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태도와 행위를 지니는 것(Anspaugh, 1994)으로 정의되는가 하면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그 정의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째, 건강 관점에서 접근하여, 웰빙을 건강증진과 건강보호행위의 결과(Pender, 1987) 또는 신체적 건강과는 구분되는 광범위한 차원의 통합적 건강 상태(Jones, 1994)로 정의한다. 통합적 건강은 5개 측면의 건강으로 제시된다(Anspaugh, 1994; O'Donnel & Harris, 1994), 즉 신체적(physical) 건강은 몸의 기능적 능력과 관련된 인체의 생리적인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emotional) 건강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적절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social) 건강은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및 다른 견해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적(spiritual) 건강은 인생의 의미, 신념, 가치와 관련한 건강한 정신상태를 말하며, 지적(intellectual) 건강은 개인, 가족, 직업적 발전을 위하여 학습하고 습득된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능력으로 봉사, 취미, 교양 탐구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보건학이나 건강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둘째, 쾌락적 관점은 웰빙을 즐겁고 행복한 정도로 보는 것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또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이 여기에 속한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웰빙은 인지적 측면에서 판단되는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에서 느끼는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경험도'로 평가된다(Deci & Ryan, 2008). 이러한 관점은 사회학 관련 분야에서 국민전체의 삶의 만족도나 생활만족도를 평가하는 사회지표 측면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행복도 평가에 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다. 셋째는 자아실현적 관점으로, 웰빙을 쾌락적 행복이 아닌 가치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으로 보고(Ryan & Deci, 2001), 개인이 최고의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개인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정도'를 웰빙으로 정의한다(Waterman, 1993). 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주로 적용되며,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 대표적인 것이다. 심리적 웰빙은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및 자율성 등의 다차원으로 평가된다(Ryff, 1989). 넷째는 소비 트렌드 관점으로, 웰빙을 하나의 소비문화 코드로 해석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 행위'로 정의하는 것(김상일, 2004)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소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효용 만족으로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는 웰빙(건강, 만족, 행복, 복지)이란 목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이나 광고촉진 활동과 관련되어 기업현장의 필요에 부응하여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학술적으로 이론화되지는 못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어느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느냐에 따라 웰빙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약간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의 네 가지 관점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핵심(key word)은 '건강'이다. 즉 자아실현적 관점의 웰빙은 심리적 건강을 강조하며, 쾌락적 관점에서의 주관적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또한 건강(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등)의 성취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소비 트렌드 관점에서 소비행위 역시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접근 관점의 차이는 '통합적 건강'을 성취하는 방식의 차이(예: 자아실현적 관점: 자기존중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건강 성취, 소비 트렌드 관점: 선택적 소비를 통한 건강 성취)나 '통합적 건강'의 성취를 통한 궁극적인 성과나 목표(예: 자아실현, 삶의 만족, 행복)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웰빙 개념(construct concept)은 통합적 건강을 중심에 두고, 이를 성취하는 수단적 방식이나 이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성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웰빙을 '다양한 생활방식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건강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건강을 실현하여 자신의 잠재력 발휘 및 삶에 대한 질적 만족도가 최적화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2.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및 구성요인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Engel et al., 1995). 웰빙 라이프스타일은 앞에서 정의한 웰빙 상태를 성취하기 위한 생활방식을 일컫는다. 즉 '통합적 건강을 실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질 만족

도가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데 공헌하는 선택적 생활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의 시간이나 금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행위), 주위환경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여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관심), 자신과 주위세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의견)에 따라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행위영역(일, 취미, 사회적 사건, 휴가, 오락, 클럽회원, 지역사회, 쇼핑, 스포츠), 관심영역(가족, 가정, 직업, 지역사회, 오락, 패션, 음식, 매체, 성취), 의견영역(자기 자신, 사회적 문제, 정치, 사업, 경제, 교육, 제품, 미래, 문화)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루어졌다(Plumer, 1974). 웰빙 라이프스타일 또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다르게 취해지는 생활방식의 총체로 다양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웰빙하면 떠오르는 연상, 웰빙적 삶에 중요한 것, 웰빙을 위한 실천행동, 웰빙 제품의 구매목적 등을 실증연구한 선행연구들(고미경, 2004; 김혜경, 김진희, 2007; 박혜선, 2006; 전향란, 제미경, 2007; 안정화, 2005)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웰빙을 삶의 만족, 삶의 여유(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자연 지향(자연생활), 정신적 풍요(심신의 안정, 정신적 가치, 긍정적 사고), 신체적 건강(건강에 대한 관심, 개인 및 가족의 건강), 여가생활, 자기개발, 환경친화적 삶(친환경 소비, 재활용), 사회의식, 유기농 식생활(좋은 음식, 식사조절), 운동, 고급화된 의식주의 소비 등과 관련하여 응답하는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응답성향이 낮기는 하였지만, 미용, 주택, 가전제품, 의료기기, 요가, 여행 등의 단어와 연합되어 연상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할 때,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인공적이거나 화학적인 성분이나 물질의 회피행위, 신체적 건강 추구 행위, 친환경 식생활, 자연 지향적 주생활, 사회적 차원의 환경의식 및 실천, 스포츠, 취미, 여행 등을 통한 적극적 여가활동, 긍정적 사고 및 정신적 수련, 가족지향 생활, 자기개발 등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 규명을 통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1. 연구문제

-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과 하위요인들에 적재된 측정문항들을 규명한다.
-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적합도 높은 수정모형을 구성한다.
- 3) 측정모형의 하위요인별로 신뢰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변수를 최종 선정한다.

2.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 개발

1) 초점집단 면접

본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웰빙 관련 기초문헌들은 서적(김영한, 임희정, 2004; 심형석, 송경진, 2004), 제일기획 보고서("웰빙", 2004), 학위논문(고미경, 2004; 안정화, 2005)에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웰빙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실증자료를 얻기 위해 2006년 2월에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홍희숙 외, 2006). 초점집단 면접(FGI)은 조사전문기관이 전화면접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웰빙 소비자로 인식되는 정도(5점 평정척도에서 '그렇다' 4점과 '매우 그렇다' 5점에 응답), 가족월 평균소득(300만원 이상), 웰빙 제품 소비성향(3개 제품 이상의 구매경험) 등을 평가하고 선정된 주부들(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큰 주제("웰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웰빙 라이프스타일인가?")를 먼저 제시한 후 구체적인 하위질문들을 추가해 해나가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초점집단 면접 결과, Plumer(1974)에서 제시된 25개 영역들 중에서 15개 영역들(일, 취미, 휴가, 클럽회원, 지역사회, 쇼핑, 스포츠, 가족, 패션, 음식, 매체, 자기 자신, 사회적 문제, 정치, 제품)과 관련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 특성들이 제시되었다. 유사한 성격이나 연관성이 높은 영역들은 통합하여 총 5개 생활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서 나타난 라이프스타일 특성들에 대해 내용분석한 결과(홍희숙 외, 2006), 첫째, 웰빙 라이프스타일 특성의 가장 근본적 핵심 요인은 건강관리성, 친환경성, 개인지향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3개 요인들은 각자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건강관리성, 친환경성, 개인지향성 등의 3요인이 국내 웰빙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구체

적으로 표면화되어 드러난 부분은 식생활영역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3요인들은 식생활영역만큼 행위적 차원의 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패션, 뷰티, 주거, 여가, 쇼핑 등과도 관련되었다. 셋째, 국가정책,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서의 친환경성 추구는 가족의 건강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접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측정문항들을 개발하였다.

2) 본 조사 측정문항의 개발

앞의 문헌적 배경에서 제시된 구성개념을 토대로 하면서 초점집단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다양한 생활영역들(의식주 생활, 쇼핑활동, 여가 생활, 사회 및 국가의 정책과 복지, 자기개발)에서 통합적 건강과 친환경을 지향하는 의견, 관심, 행위의 정도가 높은 생활특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듯이 5개 생활영역, 웰빙 라이프스타일 3개 핵심요인, AIO 3개 측면들을 상호교차 시켜 만들어진 45개 셀(cell)들 중에서 23개 셀들과 관련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초점집단 면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웰빙 관련 저서 및 보고서(김영환, 임희정, 2004; 심형석, 송경진, 2004; "웰빙", 2004)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웰빙 지향 생활특성들(예: 대체요법, 실버보험, 가족여행, 친환경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행위)을 일부 보충하였다. 그 결과 총 125개의 문항들(각 영역별로 3개~8개 문항)이 개발되었으며,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 총 3명)과 예비조사(주부들 및 직장여성 총 30명 대상으로 2006년 9월 실시)를 통하여 문항들의 문제점을 검토 수정한 후 총 119개의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결혼, 거주지 등은 선택형 응답식의 명목형 척도로 측정되었고, 연령은 자유응답식으로 측정되었다.

3. 본 조사의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조사대상은 20대~50대의 국내 여성 소비자로서, 웰빙, 건강, 천연염색, 환경 관련 온라인 사이트, 블로그, 쇼핑몰 등의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을 의뢰하는 글을 올리고, 2006년 11월 동안 연구자 홈페이지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1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기혼(132명, 52.6%)과 미혼(119명, 47.4%) 비율이 유사하고, 20대(139명, 55.4%)와 30대(79명, 31.5%)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50대 비율(33명, 13.1%)이 낮았다. 대학(대학원) 졸업 이상(178명, 70.9%)이 높고, 사무직(78명, 31.1%), 전업주부(54명, 21.5%), 전문직(44명, 17.5%) 종사자가 약간 높았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제주도(91명, 36.2%), 서울(55명, 21.9%), 경기/인천(36명, 14.4%)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보다 높았다. 가족월평균소득은 300만원~400만원 미만(75명, 29.8%), 100만원~200만원 미만(67명, 26.7%), 400만원 이상(62명, 24.7%), 200만원~300만원 미만(47명, 18.7%) 순으로 높았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직교회전, 아이겐 값 1 이상 추출)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AMOS 5.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웰빙 라이프스타일 하위요인별 측정문항의 규명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14개의 하위요인들로 구분되었으며, 총 누적변량은 65.24%로 나타났다. 측정문항들의 공통성

<표 1> 웰빙 라이프스타일 핵심요인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의 상호교차에 따른 AIO 측정

영역	요인	건강관리성			친환경성			개인적/사회적 차원		
		행동(A)	관심(I)	의견(O)	행동(A)	관심(I)	의견(O)	행동(A)	관심(I)	의견(O)
의식주		O	V		O	V		O	V	
쇼핑		O	O		O	O		O	O	
여가					O					
국가/지역사회의 정책		V		O	V		O	V		O
자기개발				O			O			O

O: Plumer (1974) 측정요소 V: 본 연구에서 추가된 측정요소

(communality)은 모두 0.5 이상이었다. 그리고 해당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절대값(1문항 제외) 모두 최소 기준치인 0.4 이상으로 수렴타당성은 양호하였다. 그리고 이들 문항들이 다른 요인들에 적재된 요인부하량값들(표 1에서 생략)은 상대적으로 낮아(<.03) 판별타당성 또한 양호하였다. 모든 요인의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1요인(가족지향 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0.7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요인 1은 주로 천연식물이나 천연염료를 이용한 의복이나 고기능성 의복에 대한 소유나 소비에 관한

8개 문항들로 구성되어졌다. 그래서 '자연주의/기능성 패션 소비'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유기농 공법에 의한 식재료의 소비, 인공적/화학적 성분의 회피, 친환경 자연식 제품에 고가격 지불 용이성 정도를 측정하는 9개 문항들로 구성된 '건강 식생활' 요인이었다. 요인 3은 취미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 대한 금전의 투자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깊이나 지속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7개 문항들로 구성된 '적극적 스포츠/취미 활동' 요인이었다. 요인 4는 화학성분 화장품보다는 천연물 성분의 화장품 소비나 이들 제품의 브랜드에

<표 2> 웰빙 라이프스타일 탐색적 요인분석

변수	요 인	요인부하량	통계량
요인 1 : 자연주의/기능성 패션 소비(Cronbach's α = .86)			
x1	-황토 염색, 감물 염색과 같이 건강에 좋은 천연염색 의복을 많이 갖고 있다.	.73	16.56* 5.20** 8.67%*** 8.67%****
x2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천연염색 제품을 주로 입는다.	.72	
x3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천연섬유 제품을 주로 입는다.	.71	
x4	-콩섬유나 죽섬유 등 건강에 유익한 천연소재 의복을 많이 갖고 있다.	.68	
x5	-다른 사람들 보다 기능성 재료나 인체공학을 적용한 기능성 신발이 많다.	.61	
x6	-건강을 생각해서 화학섬유 제품 보다 면, 마, 울 같은 천연섬유 제품을 주로 입는다.	.54	
x7	-항공기공, 고어텍스, 쿨론 등의 기능성 소재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47	
x8	-구매하는 옷에 어떤 건강 기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46	
요인 2 : 건강 식생활(Cronbach's α = .86)			
x9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식품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71	4.26 4.78 7.96% 17.63%
x10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주변에 친환경 식품의 유익을 적극 홍보한다.	.61	
x11	-화학방부제나 화학성분이 얼마나 첨가되었는지 식료품 성분을 자세히 살펴본다.	.59	
x12	-같은 식용유라도 건강에 좋은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59	
x13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식품을 사용한다.	.58	
x14	-식품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등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한다.	.54	
x15	-저공해 농산물인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	.53	
x16	-건강에 좋은 식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한다.	.45	
x17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를 사용 한다.	.42	
요인 3 : 적극적 스포츠/취미활동(Cronbach's α = .84)			
x18	-전문적인 수준이 될 정도로 깊이 있는 취미활동을 한다.	.76	3.11 3.93 6.55% 24.18%
x19	-심리적 만족을 위해 특정한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다.	.74	
x20	-체력단련을 위해 특정 스포츠활동에 돈을 지출한다.	.70	
x21	-심신의 휴식을 위해 다른 사람들 보다 여행을 자주 간다.	.62	
x22	-조깅 등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61	
x23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58	
x24	-가족의 신체적 건강이외에 정신적 건강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다양한 레포츠를 즐긴다.	.57	
요인 4 : 천연화장품의 소비(Cronbach's α = .88)			
x25	-건강 때문에 천연화장품이나 한방화장품을 사용한다.	.75	2.02 3.24 5.40% 29.58%
x26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성분으로 된 일반 화장품보다 천연화장품이나 한방화장품을 사용한다.	.74	
x27	-일반 화장품보다 한방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을 주로 쓴다.	.71	
x28	-천연화장품 (또는 목욕용품) 브랜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48	

*고유치 **회전된 요인의 분산 ***회전된 요인의 분산을 **** 회전된 요인의 누적분산

<표 2> 계 속

변 수	요 인	요인부하량	통계량
	요인 5 : 사회지향적 소비(Cronbach's $\alpha = .84$)		
x29	-사회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웰빙 제품을 이용한다.	.75	1.79
x30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복지 때문이다.	.72	3.12
x31	-주변에 친환경 제품의 유익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다.	.59	5.20%
x32	-웰빙 제품이 사회전체 복지에 얼마나 유의한가를 따져보고 구입한다.	.50	34.78%
x33	-친환경 제품이 사회전체 복지에 얼마나 유의한가를 따져보고 구입한다.	.48	
	요인 6 : 건강/환경 정책에의 관심(Cronbach's $\alpha = .77$)		
x34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68	1.57
x35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이나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66	2.82
x36	-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식품첨가물법 등의 국가 정책에 관심이 많다.	.62	4.70%
	요인 7 : 자아존중/긍정적 사고(Cronbach's $\alpha = .74$)		
x37	-자신감을 갖고 있다.	.79	1.51
x38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다.	.78	2.52
x39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	.61	4.21%
x40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독립적인 편이다.	.59	43.69%
	요인 8 : 재활용 실천(Cronbach's $\alpha = .74$)		
x41	-환경보호를 위해 못 입는 옷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갖다 준다.	.59	1.41
x42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한다.	.58	2.21
x43	-리필제품을 사용한다.	.49	3.68%
x44	-비닐봉지보다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38	47.37%
	요인 9 : 가족지향 여가활동(Cronbach's $\alpha = .59$)		
x45	-여가활동은 혼자하기 보다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편이다.	.78	1.31
x46	-특정한 스포츠활동을 가족과 함께 즐긴다.	.62	1.99
x47	-여행은 패키지의 단체 여행보다 가족끼리 따로 가는 편이다.	.47	3.32%
	요인 10 : 노후복지에의 관심(Cronbach's $\alpha = .67$)		
x48	-노년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내기 위한 실버건강보험에 관심이 많다.	.66	1.24
x49	-노인 주거시설(유료 및 무료 실버타운)에 관심이 많다.	.53	1.95
x50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질병예방에 관심이 많다.	.44	3.26%
	요인 11 :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Cronbach's $\alpha = .68$)		
x51	-향기요법이나 대체요법과 관련한 제품에 관심이 많다.	.77	1.19
x52	-향기치료, 한방치료 등 대체요법 분야에 관심이 깊다.	.53	1.92
	요인 12 : 지역봉사활동(Cronbach's $\alpha = .73$)		
x53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봉사단체에 참가한다.	.62	1.10
x54	-지역사회의 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58	1.86
x55	-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다.	.52	3.11%
	요인 13 : 노화에 대한 관심(Cronbach's $\alpha = .72$)		
x56	-몸이나 피부 노화에 관심이 많다.	.76	1.05
x57	-건강관리 서비스나 휴식 서비스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	.76	1.84
	요인 14 : 자연친화적 주생활(Cronbach's $\alpha = .73$)		
x58	-주거지 선정에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1	1.03
x59	-건강 때문에 천연재료를 사용한 아파트나 주택을 선호한다.	.56	1.76
x60	-대도시의 편리한 생활보다 건강에 좋은 자연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추구한다.	.53	2.93%
			66.13%

대한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4개 문항들로 구성된 ‘친연 화장품 소비’ 요인이었다. 요인 5는 사회전체의 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제품의 소비나 홍보에 관한 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지향적 소비’로 명명되었다. 요인 6은 건강과 관련한 의료 정책이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관심 및 의견을 평가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환경 정책에의 관심’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7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 긍정성과 독립성을 측정하는 4개 문항들로 구성된 ‘자아존중/긍정적 사고’ 요인이었으며, 요인 8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행동들(일회용품의 사용 자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리필제품의 사용, 의복 재활용)에 관한 4개 문항들로 구성된 ‘재활용 실천’ 요인이었다. 요인 9는 가족 중심적 스포츠, 여행, 여가활동에 관한 문항들로 ‘가족지향 여가활동’으로 명명되었으며, 요인 10은 노후생활과 연관된 주거 및 금전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연령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스트레스 관리나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1은 향기치료나 한방치료 등에 관한 관심문항들이어서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으로 명명되었고, 요인 12는 지역사회 캠페인이나 친환경 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문항들이어서 ‘지역봉사활동’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3은 신체 노화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견들로 구성되어 ‘노화에 대한 관심’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14는 주거지 선정, 주택선호, 추구하는 주거 유형에 있어 자연 친화성을 중요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연친화적 주생활’로 명명되었다.

2.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모형 검증과 수정지수에 따른 측정모형 수정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가정사항인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한 결과, 왜도(skewness)의 절대 값(0.042~0.789)과 첨도(kurtosis)의 절대값(0.194~0.964) 모두 최소치와 최대치가 1 미만의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약한 비정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측변수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김대업, 2008). 그리고 마할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하여 다변량 이상치(multivariate outlier)를 검사한 결과, 유의확률 값($p < .001$)이 낮은 5개 표본이 이상치로 발견되어 제거되었다(김대업, 200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

난 하위요인들을 잠재변수로 하고 각 하위요인들에 적재되었던 측정문항들을 관측변수로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측정모형이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때,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 중 1문항을 1.0으로 고정시켜 확인분석을 실시하며,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는 0이며, 단지 상관관계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Hair et al., 1999). 측정모형에 대한 1차 확인요인분석(1st CFA)을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법으로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chi^2=1774.025$, d.f.=1085, $p=.000$)과 모형 적합도 지수(GFI=.795, AGFI=.759, RMR=.076, RMSEA=.050, NFI=.730, CFI=.871, PNFI=.646, PCFI=.771)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와 각 관측변수의 수정지수(M.I.)를 검토하고, 수정지수가 매우 큰(M.I. >10) 관측변수(혹은 오차항을 가진 관측변수)들을 제거하였다.

한편, 수정지수가 큰 관측변수들이나 수정지수가 큰 오차항을 갖는 관측변수들을 제거하고 남은 14개 잠재변수들과 28개 관측변수들을 이용하여 2차 측정모형을 재구성하고(변수 제거에 따라 요인명 약간 수정), 이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2nd CFA)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크게 개선되었지만(GFI=.909, AGFI=.858, RMR=.055, RMSEA=.042, NFI=.869, CFI=.954, PNFI=.596, PCFI=.654),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chi^2=372.09$, d.f.=250, $p=.000$)이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AGFI 또한 바람직한 모형 적합도 기준(0.9)에 약간 미달하였다. 그리고 수정지수들을 재검토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대체요법 잠재변수의 문항 오차(e51)가 다른 여러 잠재변수들(자연친화적 주생활, 노후복지)이나 다른 관측변수(x59)의 오차항(e59)과 공분산이 높고, 가족지향 문항(x45)은 다른 여러 관측변수들이나 잠재변수들과의 관계가 높아 이들에 대한 수정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관측변수들(x45, x51)을 제거한 결과,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1개 관측변수만 남게 되어 3차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들(대체요법, 가족지향) 또한 제거되었다(표 3).

3. 웰빙 라이프스타일 하위요인별 신뢰도 검증과 측정모형 수정

2차 확인적 요인분석(2nd CFA)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부 지수(χ^2 값, AGFI)가 모형 수용 기준치에 약간 미달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근사하고 있을 뿐 아니

<표 3>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2차 및 3차 측정모형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변수	순서		2차 측정모형 확인요인분석 ($\chi^2=372.092, df=250, p=.000$)			3차 측정모형 확인요인분석 ($\chi^2=90.698, df=76, p=.120$)		
	잠재변수	관측변수	표준화 회귀계수(λ)	개념 신뢰성	AVE	표준화 회귀계수(λ)	개념 신뢰성	AVE
1	자연주의 패션	x1	.735	.642	.474	-	-	-
		x3	.638					
2	건강 식생활	x13	.813	.708	.550	.781	.698	.544
		x9	.663			.691		
3	적극적 스포츠활동	x20	.754	.707	.547	.733	.706	.546
		x22	.724			.745		
4	천연화장품 소비	x26	.852	.855	.748	.868	.855	.747
		x25	.877			.861		
5	사회지향적 소비	x31	.804	.779	.638	.832	.780	.640
		x30	.793			.766		
6	건강 정책 관심	x36	.842	.721	.568	.827	.718	.563
		x35	.653			.665		
7	자아존중	x38	.753	.776	.634	.811	.774	.631
		x37	.837			.777		
8	재활용 실천	x43	.750	.677	.512	-	-	-
		x42	.679			-		
9	가족지향 여가활동	x45	.469	.700	.566	-	-	-
		x46	.955			-		
10	노후복지에의 관심	x49	.492	.618	.343	-	-	-
		x50	.666			-		
11	대체요법에의 관심	x52	.869	.722	.571	-	-	-
		x51	.622			-		
12	지역봉사활동	x53	.855	.739	.590	.853	.739	.589
		x54	.670			.671		
13	노화에 대한 관심	x57	.631	.515	.345	-	-	-
		x56	.549			-		
14	자연친화적 주생활	x59	.838	.739	.585	.873	.744	.597
		x60	.684			.657		

<표 4>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2차 측정모형 분석에서 수정지수가 높은 변수 및 오차항

구분	잠재변수, 관측변수, 오차항			수정지수 (M. I.)	par change
공분산 (covariances)	e51	↔	e59	11.624	-.158
	e51	↔	자연친화적 주생활	9.430	-.123
	e51	↔	노후복지	4.792	.077
회귀가중치 (regression weights)	x45	←	x9	13.420	.261
	x45	←	건강 식생활	10.792	.308
	x45	←	사회지향적 소비	10.353	.265
	x45	←	x30	9.726	.221
	x45	←	x13	7.263	.187
	x45	←	재활용 실천	6.301	.265
	x45	←	x31	5.629	.170

라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양호하였다. 그리고 잠재변수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관측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가중치(regression weight)의 계수(estimate: λ)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비표준화 λ 의 C. R. \geq 1.96). 따라서 다음 단계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잠재변수들과 관측변수들의 신뢰도(수렴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신뢰도는 수렴타당도를 의미하며 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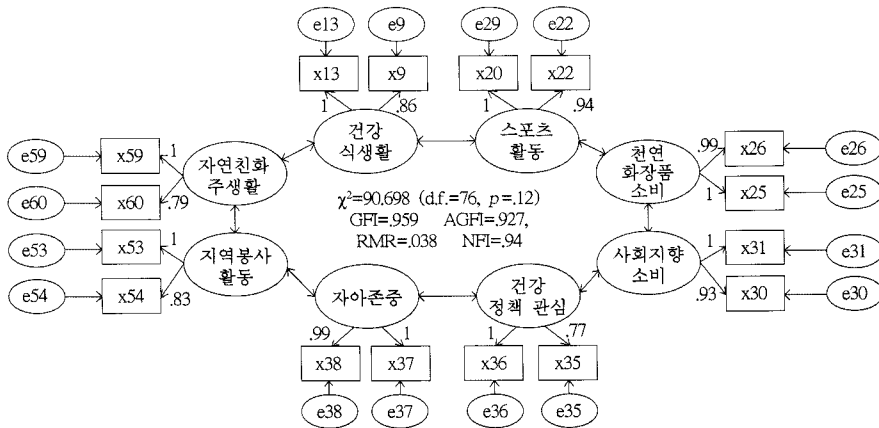
지 기준으로 검사한다(김대업, 2008). 첫째,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주는 영향인 표준화 회귀가중치의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표준화 λ)가 0.7 이상이거나 표준화 회귀가중치 계수의 제곱(λ^2)이 0.5 이상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검사한다. 둘째,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이라고 칭되는 개념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이 0.7 이상이어야 한

다. 셋째, 추출된 분산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표준화 가중치의 계수(표준화 λ), 개념신뢰성, AVE 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여기서 자연주의/기능성 패션(요인 1), 재활용 실천(요인 8), 노후복지(요인 10), 노화에 대한 관심(요인 13) 등 4개 잠재변수들의 표준화 가중치의 계수(<0.7, 개념신뢰성(<0.7), AVE(<0.5) 값들 모두 기준치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들 4개 잠재변수들이 다시 제거되었다. 따라서 총 6개 잠재변수들(대체요법에 대한 관심, 가족지향 여가활동, 자연주의/기능성 패션, 재활용 실천, 노후복지, 노화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고 8개 잠재변수들로 구성된 3차 측정모형을 재구성하였다(그림 1). 그림에서 잠재변수들 간 관계 설정(\leftrightarrow)은 일부만 표시되었다.

4. 웰빙 라이프스타일 하위요인별 판별타당도 검증과 측정모형 수정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변수들로 구성된 3차 측정모형에 대한 3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chi^2=90.698$, d.f.=76, $p=.120$)을 비롯하여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들 또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GFI=.959, AGFI=.927, RMR=.038, RMSEA=.028, NFI=.940, CFI=.989, PNFI=.595, PCFI=.627). 그리고 3차 측정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들과 관측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개별 관측변수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표준화 회귀가중치의 계수(표준화 λ)들인 경우 기준치에 약간 못 미치기는 하였지만 거의 근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잠재변수

의 개념신뢰성과 AVE 값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판별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은 앞의 신뢰성 검사에서처럼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가중치의 회귀계수가 유의해야 하고(비표준화 λ 의 C. R. ≥ 1.96), 표준화 회귀가중치의 계수(표준화 λ)가 0.7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2개 잠재변수들(예: A, B) 간 상관계수(correlation)의 제곱인 SMC_{AB} 값이 2개 잠재변수들의 AVE 값(AVE_A & AVE_B)들 보다 커야만 판별타당성이 인정된다(김대업, 2008). 다시 말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혹은 상관계수의 제곱: SMC)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상관계수(표준화 λ)나 상관계수의 제곱(표준화 λ 의 제곱)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인정된다(Bagozzi, 1981). 3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관측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3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모든 잠재변수들의 AVE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표 5>에 제시된 두 잠재변수들 간 SMC 값이 0.5 이상이 되면($AVE < SMC$) 판별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두 잠재변수들(건강 식생활, 자연친화적 주생활) 간 SMC 값(0.555)이 건강 식생활의 AVE(0.544) 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주생활을 구성하는 관측변수(x60)의 표준화 회귀가중치의 계수(표준화 λ)가 기준치(>0.7)에 약간 미달하는가 하면 관측변수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4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SMC가 낮게 나타난 두개 잠재변수들 중에서 건강 식생활을 제거시킨 측정모형과 자연친화적 주생활을 제거시킨 측정모형 2개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2개



<그림 1> 3차 측정모형의 구성 및 검증

<표 5> 웰빙 라이프스타일 3차 측정모형 및 최종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요인	잠재변수		3차 확인요인분석		최종 확인요인분석	
			상관계수	SMC	상관계수	SMC
2	건강 식생활	스포츠활동	.201	.040	.201	.040
		사회지향적 소비	.580	.336	.580	.336
		건강 정책 관심	.691	.477	.680	.462
		지역봉사활동	.067	.004	.068	.005
		자연친화적 주생활	.745	.555	-	-
		천연화장품 소비	.518	.268	.518	.268
		자아존중	.414	.171	.407	.166
3	스포츠활동	사회지향적 소비	.272	.074	.273	.075
		건강 정책 관심	.322	.104	.315	.099
		지역봉사활동	.507	.257	.511	.261
		자연친화적 주생활	.272	.074	-	-
		천연화장품 소비	.349	.122	.350	.123
		자아존중	.425	.181	.422	.178
5	사회지향적 소비	건강 정책 관심	.599	.359	.596	.355
		지역봉사활동	.511	.261	.513	.263
		자연친화적 주생활	.466	.217	-	-
		천연화장품 소비	.484	.234	.484	.234
		자아존중	.259	.067	.260	.068
6	건강 정책 관심	자연친화적 주생활	.364	.132	-	-
		지역봉사활동	.611	.373	.360	.130
		천연화장품 소비	.579	.335	.568	.323
		자아존중	.336	.113	.325	.106
13	자연친화적 주생활	지역봉사활동	.149	.022	-	-
		천연화장품 소비	.526	.277	-	-
		자아존중	.325	.106	-	-
12	지역봉사활동	천연화장품 소비	.397	.158	.401	.158
		자아존중	.103	.011	.101	.011
4	천연화장품 소비	자아존중	.216	.047	.219	.047

<표 6> 잠재변수 제거에 따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제거변수	모형 전반적 적합도			모형설명력		중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RMR	RMSEA	GFI	AGFI	NFI	CFI	PNFI	PCFI
요인 2	66.01 (d.f.=56, p=.169)	.039	.027	.965	.935	.947	.965	.583	.610
요인 13	55.49 (d.f.=56, p=.494)	.034	.001	.970	.944	.956	1.00	.588	.615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한 결과 <표 6>과 같이 자연친화적 주생활 잠재변수를 제거한 측정모형이 건강 식생활을 제거한 측정모형보다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친화적 주생활 잠재변수를 제거하고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변수의 최종 선정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chi^2=55.491$, d.f.=56, p=.494)을 비롯하여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들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여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았다(GFI=.970, AGFI=.944,

RMR=.034, RMSEA=0, NFI=.956, CFI=1.0, PNFI=.588, PCFI=.615). 그리고 <표 7>에서 보듯이 7개 잠재변수들 모두에서 개별 관측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비표준화 λ)들은 모두 유의하였다(C.R.>1.96). 일부 관측변수들(x9, x35, x54)의 표준화 회귀계수(표준화 λ)들은 0.7에 거의 근접하고 있었으며, 그 외 관측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들은 모두 0.7 이상이었다. 따라서 개별 관측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잠재변수의 개념 신뢰도 값은 모두 0.7 이상이었으며, 잠재변수의 AVE 값도 모두 0.5 이상이었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의 SMC 값은 AVE 값보다 낮았다(표 5). 따라서 신뢰성과 판별타당성이 검증된 7개 잠재변수(건강 식생활, 스포

<표 7> 최종 확인요인분석에 따른 웰빙 라이프스타일 최종 측정모형의 회귀가중치와 신뢰도

요인	잠재변수	관측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λ)	표준오차 (S.E.)	Critical ratio (C.R.)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λ)	개념 신뢰도	AVE	평균 (표준편차)
2	건강 식생활	x13 x9	1.000 .836	.096	8.734***	.793 .680	.705	.546	3.75 (.94)
3	적극적 스포츠활동	x20 x22	1.000 .949	.135	7.043***	.732 .747	.707	.547	2.80 (1.08)
4	천연화장품 소비	x26 x25	.985 1.000	.107	11.668***	.864 .866	.856	.748	2.96 (1.11)
5	사회지향적 소비	x31 x30	.932 1.000	.087	10.057***	.833 .766	.781	.641	2.99 (.96)
6	건강 정책 관심	x36 x35	1.000 .731	.084	8.378***	.852 .646	.724	.572	3.23 (.89)
7	자아존중	x38 x37	1.000 .992	.145	6.863***	.819 .770	.856	.632	3.62 (.89)
12	지역봉사활동	x53 x54	1.000 .853	.107	7.984***	.842 .680	.772	.586	2.20 (.95)

츠활동, 천연화장품 소비, 사회지향적 소비, 건강 정책에의 관심, 지역봉사활동, 자아존중)들과 이 7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 14개 관측변수들(x13, x9, x20, x22, x26, x25, x31, x30, x36, x35, x38, x37, x53, x54)이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변수들이자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V. 논의 및 시사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 도구는 최종 7개 잠재변수들(건강 식생활, 적극적 스포츠활동, 천연화장품의 소비, 사회지향적 소비, 건강 정책에의 관심, 자아존중, 지역봉사활동)을 측정하는 14개 관측변수들(x13, x9, x20, x22, x26, x25, x31, x30, x36, x35, x38, x37, x53, x54)로 구성되었다. 이들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내용 타당도를 논의해 보면, 첫째, 건강 식생활(요인 2) 변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제품의 소비에 관한 2개 문항만이 유지되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식품을 사용(x13)할 뿐 아니라 친환경 식품에 추가비용을 지불할 용의(x9)가 있다는 문항들로 구성된 '건강 식생활' 요인은 초점집단 면접(홍희숙 외, 2006)에서 국내 웰빙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가장 높게 성취되는 생활특성이다(M=3.75). 뿐만 아니라 국내의 웰빙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미국의 LOHAS 소비자의 10대 성향들 중 일부 특성(유기농 식품의 소비, 건강식품의 소비)과 유사하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사용과 추가비용 지불 용의성'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적극적인 스포츠/취미활동(요인 3)의 경우, 취미활동에 관한 문항들은 제거되고 스포츠활동을 위한 금전의 지출(x20)과 규칙적인 운동(x22)에 관한 2개 문항만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이 요인은 <표 3>에서 '적극적 스포츠활동'으로 다시 명명되었다(M=2.80). 웰빙적 삶의 추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국내 연구(김혜경, 김진희, 2007)에서 신체적 건강, 여가생활이 상위 순위로 나타난 결과나 웰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에서 운동이 상위 순위를 차지한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측정문항들은 웰빙 라이프스타일 평가내용으로 타당하다. 이것은 스포츠, 피트니스, 여가활동에서의 신체활동이 주관적 웰빙, 심리적 웰빙, 생활만족도 및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들(예: 김석일, 2004; 이상구, 1998; 정용각 외, 2005)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셋째, 천연화장품의 소비(요인 4)는 천연화장품이나 한방화장품에 대한 사용이 많다(x26, x25)는 2개 문항들로 구성된다(M=2.96). 웰빙 소비자 집단이 다른 일반 집단 소비자들에 비해 자연주의 화장품 구매경험과 구매의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박효원, 김용숙, 2005)에 따를 때, 이 요인 또한 웰빙 라이프스타일 평가내용으로 타당하다. 넷째, 사회지향적 소비(요인 5)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x31)하고, 이의 유익을 주변사람들에게 홍보(x30)하는 이유가 사회전체의 복지를 위해서라는 2개 문항들이 유지되었다(M=2.99). 그리고 건강 정책에의 관심(요인 6)은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소비

생활 관련 국가 정책(x36)과 국가의 의료 정책(x35)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2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문항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건강 정책에의 관심' 요인으로 새로 명명되었다(M=3.27). 지역봉사활동(요인 12)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봉사단체(x53)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활동(x54)에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2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M=2.20). 이러한 요인들은 미국 LOHAS 소비자들을 규정하는 12개 지표들의 일부(환경보호에 대한 적극성, 사회 전체 차원의 의식 있는 삶, 지속가능한 기법으로 제조된 제품의 선호)와 연관된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대학생들 및 중미와 북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타적 행동이나 타인을 도움으로써 타인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선정된 점(Chiasson et al., 1996; Lee et al., 1999)을 고려할 때, 이 하위요인들 역시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이존중/긍정적 사고' (요인 7)에서는 자신감(x37)과 자신에 대한 존중(x38)을 평가하는 2개 문항들만 유지되고 긍정적 사고와 독립성에 대한 평가문항들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표 3>에서 '자이존중' 요인으로 새로 명명되었다(M=3.62). 국내 대학생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기수용'이었다는 결과(김명소 외, 2002)에 근거할 때, 이 요인의 측정문항들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한편, 2차 측정모형의 하위요인들 중 7개 요인들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들 역시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잠재변수들로 지지될 수 있다(다음에 제시되는 평균값들은 <표 3>의 문항들을 토대로 한 것임). 예컨대, 웰빙을 심신의 안정, 친환경, 전원생활 추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할수록 웰빙 패션제품의 구매경험과 구매의도가 높았다는 결과(박혜선, 2006)를 볼 때, 자연주의/기능성 패션 소비(요인 1)는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M=2.72). 그리고 재활용 실천(요인 8, M=3.55)의 경우도 환경의식이 의류 재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노영래, 김시월, 2002)와 미국 LOHAS 소비자 규정에 재활용의 적극적 사용이나 재활용될 수 있는 원료의 사용 등이 LOHAS 지표로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웰빙 라이프스타일 평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가족지향 여가활동(요인 9, M=3.01) 또한 중미와 북미에서 가족관계가 행복의 요소로 나타난 결과(Chiasson et al., 1996)나 국내 대학생들에게서 가족정체성이 주관적 웰빙을 예측하는 요소로 나타난 결과(김명소 외, 2002)임을 고

려할 때, 웰빙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와 한국 대학생들 및 중미와 북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Chiasson et al., 1996; Lee et al., 1999), 질병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나 건강이 행복 요소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질병과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대비한 노후복지에 관심(요인 10, M=3.29)이나 노화에 대한 관심(요인 13, M=3.60)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소비자 특성이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웰빙 라이프스타일이 건강 개념과 친환경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적 견해를 감안할 때, 자연친화적 주생활(요인 14, M=3.64) 또한 웰빙 라이프스타일 차원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대체요법의 관심(요인 11, M=3.15)은 웰빙 관련 저서들(김영한, 임희정, 2004; 심형석, 송경진, 2004)에서 언급되었던 웰빙 소비자들의 특성으로, 이 또한 건강 개념에서 파생한 선택적 생활방식의 하나로 본다면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평가차원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인들이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거된 것은 첫째, 이 요인들을 잠재변수로 하여 이 개념을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관측변수(측정문항)들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이러한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이 너무 흔하거나(예: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 노화에 대한 관심, 장바구니 이용) 너무 드문 상황(예: 의류 재활용, 실버건강보험에의 관심, 향기치료)들을 평가하는 문항들이거나, 너무 구체적인 단편적 내용들(예: 콩섬유나 죽섬유 제품, 콜론이나 고어텍스 제품) 또는 장점을 동시에 내포한 비교 문항들(예: 도시의 편리한 생활과 건강에 좋은 전원생활)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즉 이러한 문제들이 측정문항들의 변별력, 신뢰도, 판별타당도를 낮추었을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의 생활 보편성 정도에 따라 측정내용들에 대한 AIO(관심, 의견, 행동) 측면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즉 대부분의 측정내용(문항)들이 관심이나 흥미보다 행동(예: 소유, 소비, 참가, 실행) 차원에서 평가되는 경향이 많아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강도가 높았을 수 있다. 셋째, 일부 요인들(요인 10 ~ 요인 14)에서는 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신뢰도 높은 항목들이 재구성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나타난 13개 하위요인들 모두를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잠재변수로 고려하되,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관측변수들을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에서 40대~50대 연령의 표본 수가 작아 이들 연령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40대와 50대 연령 비율을 높은 상황에서 본 측정도구의 재현성을 검토하거나 이 연령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미경. (2004). 웰빙 의류 상품기획 전략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대업. (2008). *AMOS A to Z*. 서울: 학연사.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 초록집*, 725-731.
- 김상일. (2004). 웰빙 열풍을 읽는 3개의 코드. *LG 주간경제* 767호, pp. 19-24.
- 김석일. (2004). 생활체육 활동 참가자들의 심리적 웰빙 프로파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3(6), 193-203.
- 김영한, 임희정. (2004). *웰빙 마케팅*. 서울: 다산북스.
- 김혜경, 김진희. (2007). 세대간의 웰빙 인식 정도와 웰빙 관련 실천행동의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4), 426-439.
- 노영래, 김시월. (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미혼취업여성의 사장의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 박정숙. (2005). 웰빙 지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세분화에 따른 여가행동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선. (2006). 웰빙 인식과 웰빙 패션 상품 구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5), 711-721.
- 박효원, 김용숙. (2005). 20대~30대 여성의 웰빙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자연주의 화장품 구매행동. *뷰식*, 55(6), 93-106.
- 심형석, 송경진. (2004). *웰빙 비즈니스*. 서울: 박영물출판사.
- 안정화. (2005). *한국 사회에서 웰빙 현상의 실태와 사회적 의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구. (1998).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37(4), 160-174.
- 이화선. (2005). 웰빙 트렌드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유기농 식품 패키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향란, 제미경. (2007). 웰빙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웰빙 지향 소비자 행동 - 기혼여성 소비자의 구매, 사용,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957-967.
- 정용각, 안성주, 오성기. (2005). 건강 운동 프로그램 참가가 스트레스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산체육학회지*, 7, 13-30.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디지털 간행물*. 자료검색일 2008, 8. 10, 자료출처 <http://meta.kosis.kr/bzmt/>
- 홍희숙, 고애란, 이수경, 김정희. (2006). 웰빙 라이프스타일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국내 웰빙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마케팅과학회 초록집*, 201-223.
- 2004년 ‘웰빙’ (Well-Being)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新 라이프스타일. (2004, 7). *파란통신 거리에서 쓰는 라이브 마케팅 보고서*. 자료검색일 2004, 10. 20, 자료출처 http://www.cheil.co.kr/cheilhome/report/294_paran_200401_wellbeing-1.pdf.
- Anspaugh, D. A. (1994). *Wellness: concepts and application*. St. Louis, MI: Mosby .
- Bagozzi, R. P.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 com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75-381.
- Chiasson, N., Dube, L., & Blondin, J. (1996). A look into the folk psychology of four cultural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673-691.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 14-23.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9).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Jones, L. J. (1994). *The social context of health and health work*. London: Macmillan.
- Lee, D., Park, S., Uhlemann, M., &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fo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 Maslow, A. H. (1959), *New knowledge in human values*. New York: Harper & Row.
- O'Donnel, M. P. & Harris, J. J. (1994).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2nd ed.). New York: Delmar Publisher Inc.
- Pender, N. J. (1987).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2nd ed.). New York: Free Press.
- Plu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1), 33-37.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4, 678-691.
-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 Retrieved August 10, 2008, from <http://www.worldbank.org/data/quickreference/quickref.html>.